



1

INKE, 국내외 벤처기업인간 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로 성장

-발족 5년 만에 세계 18개국 25개 지부 설립-

INKE 발족 5주년 기념식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

INKE 발족 5주년을 기념하는 'INKE Spring Toronto, 2005'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됐다.

이번 INKE Spring에는 INKE 남민우 의장(다산네트웍스 대표)을 비롯하여 미국 뉴욕지부 레이먼드 강 의장, 중국 심양지부 오병운 의장, 호주 시드니 지부 맹응주 의장 등 10여 명의 해외지부 의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INKE 발족 5주년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주요행사로는 10차 정기이사회와 국내기업과 해외지부간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과 캐나다 주요인사와 함께한 5주년 기념식 및 만찬,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과 INKE 임원단의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밴쿠버 및 멕시코시티에 신규지부 설립돼

현지시각으로 17일 개최된 10차 정기이사회에서는 해외지부 회원들과 국내의 기업간의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고, 향후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방안을 교환한 뜻깊은 자리였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밴쿠버지부와 멕시코시티지부 설립이 다수의 의결로 확정되었는데, 이로써 INKE는 세계 18개국 25개 지부의 명실상부한 글로벌네트워크로 자리 잡게 됐다.

2005년 신규지부인 밴쿠버지부는 김태형(APAC Investment 대표) 의장의 주도로 20여 명의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멕시코 시티지부 박성근(Wiz Solutions S.A. DE C.V. 대표) 의장은 한국기업의 현지 런칭(launching) 경험이 풍부하여 국내 벤처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확실한 도우미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INKE 5주년 기념식에 캐나다 정부 주요인사 및 현지경제인 대거 참석

18일(현지시각)에 열린 INKE 발족 5주년 기념식에서는 마고 모린(Margo Morin) Industry Canada Executive Director(차관급)와 앨런 앤더슨(Allan Anderson) Industry Canada Director(차관보급) 등 캐나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주요인사 및 한국 벤처기업에 관심을 가진 100여 명의 현지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러진 만찬을 통해 캐나다측 참가자와 한국측 INKE 임원 및 참가기업들은 활발한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다.

다채로운 비즈니스 상담회 열려

이번 Technology Trade Mission - Korea comes to Canada의 비즈니스 상담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



2



3



4



5



6

우선 토론토 NTC(National Trade Center)에서 진행된 Wireless & Mobile World Expo에 참가한 국내 12개 참가기업과 INKE 해외의장 단간의 비즈니스 상담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됐는데, 참가기업 입장에서는 캐나다 지역 외에도 세계 여러 지역의 시장정보와 진출 가능성을 동시에 타진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또한 INKE 해외의장단과 INKE 토론토지부 회원기업간의 PT상담회도 진행됐는데, 총 3개 기업이 기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위해 INKE 역할 강조

한편, 이번 INKE Spring에 자리를 함께한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과 INKE 국내외 임원 간의 간담회도 19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생생한 의견과 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교환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정준석 차장은 “한국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INKE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부도 국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전진기지 역할 기대

끝으로, 남의장은 “INKE는 오는 연말까지 30개, 2006년까지 50개 해외지부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일례로 이사회에서 해외지부의 신규 설립 인준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일 정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설립된 해외 주요도시의 INKE 지부들은 해외 제휴 기업 발굴 및 섭외와 이들 간의 협상과 계약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중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 INKE 출범 5주년 기념식 후 양국간 경제협력에 다짐하며
- 2 협회 백종진, 김태희 수석부회장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에 다짐하며 공식만찬에서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 3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과 캐나다 연방정부 앨런 앤더슨 Director(차관보급)가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에 대한 비공식 회의 및 담화에 앞서
- 4 INKE 출범 5주년 기념식 공식만찬에서 협회 조현정 회장의 환영사
- 5 INKE Spring 제10차 이사회에서 협의 중인 INKE 회원들
- 6 INKE 해외지부 의장단 및 협회 임원단이 이사회를 마치고